

# 예수내구주

## JESUS MY SAVIOUR

2015. 11. 1. 제665호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등록번호 서울다06400(1989년 2월 15일 창간 격주간)  
발행인 김성현 | 발행처 재단법인 기독교베로아카데미 진흥재단  
편집 베로아센터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신은자 집사(1940년 생)는 서울성락교회 양천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어느 집사님의 인도로 서울성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온 몸이 가려운 증상 때문에 한 달 치나 되는 약을 샀는데, 그분의 말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다 고쳐주신다고 했으니 약 먹을 필요가 없잖아?' 그길로 저는 하루 전 날에 산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처음 참석한 예배에서 목사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했으면 나왔음을 믿으라는 말씀에 저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친구가 저에게 가렵지 않냐고 물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몸이 가려웠다는 사실을 어느새 잊고 살 정도로 멀쩡해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교회에 처음 나온 날부터 가려움증이 없어졌습니다. 이후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행복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 갔습니다.

그 후 병원 한 번 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하러 가기 위해 일어나 세수하려고 물을 얼굴에 갖다 대는 순간 쓰러지고 말았

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가면서도 계속 "예수여!"만 외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의사가 저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는 순간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미 심장 대동맥이 터진 상태여서 의사는 저를 하얀 천으로 덮고 영안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니었지만 의사는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은 제가 영안실로 옮겨지던 중에 의사를 붙잡고 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는 영안실로 향하던 길에서 돌아켜 수술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사 네 명이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어깨에서부터 몸통 중앙까지 열어 피를 씻어내고 터진 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잇는 수술이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핏줄이 아예 터져버렸기 때문에 인공혈관을 달아야 했습니다.

수술 후 저는 무의식 중에 꿈을 꾸었습니다. 너른 벌판에 수없이 많은 하얀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이는 멋있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으로 두 남자가 저를 흘겨보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들이 귀신임을 알아채고 "더러운 귀신아나개!"

라고 외쳤는데 그 순간 저의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자 끔찍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사는 저를 시체로 취급하여 아예 마취도 하지 않은 채 수술했던 것입니다. 가족과 성도들은 제 옆에서 계속 기도해 주었습니다. 통증은 고통스러웠지만 저를 죽이려했던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었기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후에 저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적극적으로 살아난 사람이라고 하여 방송에서 취재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수술을 집도한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가 살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의사는 자신이 살린 것이 아니라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이후 저는 13일 만에 퇴원했고 수술 부위를 싸맨 채로 다니며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 것이 분명해 가만히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육신을 죽이려고 탐탄 귀신의 방해를 이기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내 인생의

# Turning Point

46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식언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하옵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민수기 23:19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070-7300-6300 www.sungrak.or.kr



月山 이야기

### 아버지께 한 다짐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 다짐을 글로 쓰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에 '새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선생님의 말씀을 더 잘 듣겠다'라고 써서 드렸다. 그때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를 실천해라. 그것이 아버지를 속이지 않는 것이고 선생님께 보답하는 길이다."라고 하셨다.

어린 마음에 아버지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많이 속였나 보다 하고 마음에 찝하고 어떤 느낌이 오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종종 아버지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내 마음이 더욱 간절했던 것 같다.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아버지를 더욱 불쌍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곤 했다.

-월산(月山) 수필집 『님 앞에 엎드려』 중



우리 사회 엿보기

### 오덕후



오덕후란 일본어인 오타쿠(おたく)를 한국식으로 발음한 온라인 상의 신조어다. 이는 사회적 상식에서 벗어나 특정한 분야에 광적인 정도로 빠져드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의 한 청년이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에 심취한 나머지 그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와 대화하는 모습이 어느 방송에

서 소개됐다. 그는 그 캐릭터를 마치 살아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여자 친구인 양 데이트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특정 만화 캐릭터에 빠져 그와 관련된 모든 용품을 닮는 대로 구입하는 사람들도 방송에 많이 소개되었다.

이들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까지 포기할 정도로 빠져들기 때문에 사회부적응자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들을 오락거리의 소재로 삼는 일부 방송매체 때문에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다. 각자가 느끼는 행복의 기준은 다르다면서 이해를 얻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 2:15)라고 말씀한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이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다.

예술로 이야기 하는 성경

### 밀레 "만종"



11월 8일은 기독교회의 큰 절기인 추수감사주일이다. 추수감사주일은 성도가 한 해 동안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

는 날이다. 이와 관련한 수많은 예술 작품 중에 밀레의 "만종"을 소개한다. 만종(晩鐘)을 우리말로 풀면 저녁종이다. 가톨릭교회는 하루 세 번 종을 울려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를 삼종기도로 한다. 작품을 살펴보면 해가 질 무렵으로 저녁 삼종기도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밀레는 이 작품에서 해가 질 무렵에 감자를 캐다 말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목가적이고 평화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작품 이면의 현실은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많지 않은 수확으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고단함이 엿보인다. 그러나 부부로 보이는 두 농부는 인생의 고단함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위성 예배 안내

- |                   |                   |                     |
|-------------------|-------------------|---------------------|
| <b>서울지역</b>       | 서정 031)611-9011   | 대전 042)532-7787     |
| 강남 02)569-8174    | 성남 031)756-2777   | 서대전 042)582-1618    |
| 강동 02)475-1815    | 수원 031)243-6906   | 몽산포 041)672-1791    |
| 강북 02)980-9661    | 시흥 031)318-0243   | 예산 041)333-8429     |
| 강서 02)2658-7821   | 안산 031)418-0517   | 천안 041)564-9182     |
| 광명 02)2681-3249   | 예일 031)395-9191   | 청풍 043)648-3965     |
| 금천 02)803-1165    | 원당 031)966-3004   |                     |
| 노원 02)934-5816    | 의정부 070)7300-8710 | <b>호남지역</b>         |
| 동부 02)493-8666    | 이천 031)633-0690   | 광주 062)262-7216     |
| 서대문 02)307-8291   | 일산 031)921-8291   | 군산 070)8776-6200    |
|                   | 통일동산 031)957-9188 |                     |
| <b>경기지역</b>       | 평택 031)658-4940   | <b>제주지역</b>         |
| 가평 031)582-9122   | 포천 031)535-1456   | 제주 064)723-5447     |
| 구리 031)557-6040   |                   |                     |
| 김포 031)998-0191   | <b>강원지역</b>       | <b>교단 교회</b>        |
| 남부 031)387-7846   | 강릉 070)7300-8280  | 구미 054)455-9527     |
| 남인천 032)465-3696  | 원주 033)762-8295   | 김천 054)431-4894     |
| 능곡 031)818-8291   | 춘천 033)251-8291   | 대전 041)936-1875     |
| 덕정 031)858-1671   |                   | 동두천 031)862-7082    |
| 인천 032)817-8291   | <b>영남지역</b>       | 마창진 055)252-3855    |
| 부천 032)321-8886   | 대구 053)965-0445   | 전주세계로 010)6263-0191 |
| 부평 032)546-9818   | 부산 051)501-1130   | 청주 043)262-9022~3   |
| 분당 031)717-6525   | 울산 070)7300-8690  | 파주성락 031)943-0662   |
| 서안산 070)7300-8621 |                   | 포항성락 054)252-2284   |
| 서인천 032)574-8924  | <b>충청지역</b>       | 서울새벽 02)467-5964~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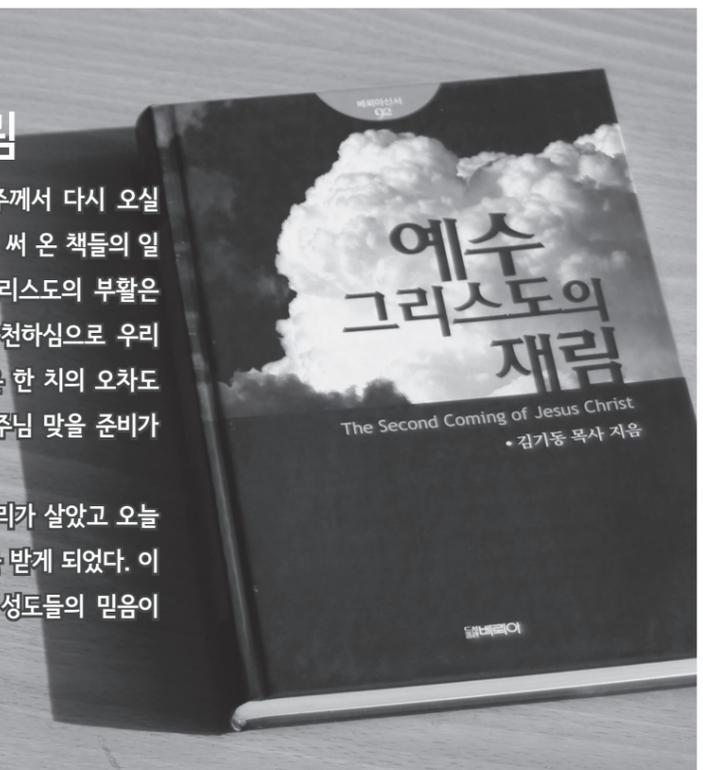
BOOK STORY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본서는 주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실 약속에 대해 쓴 것으로 저자가 그동안 써 온 책들의 일관된 복음에 대한 증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적이 아니라 약속이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성령을 받았다. 이제 주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속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과연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일로 우리가 살았고 오늘 날 그의 성도들이 구원받았으며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제 주가 다시 오실 날만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과연 그러한지 타진하고자 한다."

-머리말 중에서-





# 성령의 양육을 받자

“...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  
(로마서 8장 12~17절)

**하** 나님은 참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이는 단지 지식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참되심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 하나님은 참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 아니라 육신까지도 도와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믿는 자들은 병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 주어 매를 맞으셨고 이를 통해 우리를 병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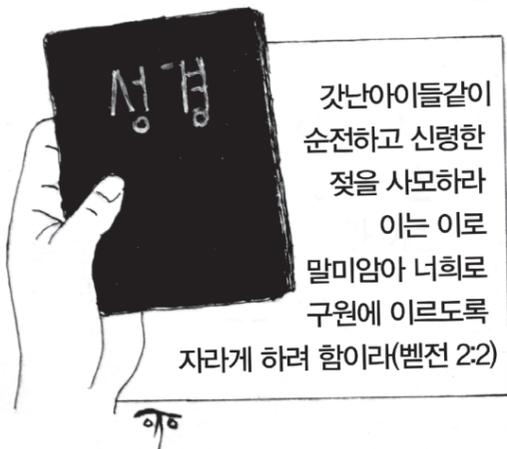
주님은 우리를 위해 매를 맞으시는 것보다 더 큰 일도 하셨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남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설령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위해 죽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기와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이 사용한 가장 무서운 형벌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피가 조금씩 흐르고 까마귀가 날아와 살점을 뜯고 못에 걸린 손발로 몸무게를 지탱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며 천천히 죽어가는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구원하려는 인간들은 예수를 죽음에 넘겨주었고, 예수는 바로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공로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러한 일을 무시하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멸망하기로 작정한 자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혼보다 육체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영혼이 사는 문제는 육체가 병에서 해방되는 것보다 훨씬 절실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목숨을 버리게 하신 것은 그분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러한 영벌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영원한 불못의 고통은 단 한 시간도 견딜 수 없을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속아 저주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 주님은 우리를 양육하신다

예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 14:16)라고 말씀하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양육을 허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자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는 말의 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아픈 희생을 치르고 구하신 우리 영혼을 우리는 잘 돌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육체에 맡기려 하지만 육체에는 영혼을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 살려낸 영혼을 육체에게 맡긴다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육체는 언제라도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며 사단의 생각으로 지배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육체에게 어떻게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언젠가 죽는 것이 육체입니다. 육체에는 신뢰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의지했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주체는 영혼입니다. 육체는 주(主)가 아니라 객(客)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합부로 육체에 맡기지 않도록 권고하셨습니다(롬 8:5).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셨습니다. 이는 그가 직접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양육을 받듯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 받자

육체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것으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악할찌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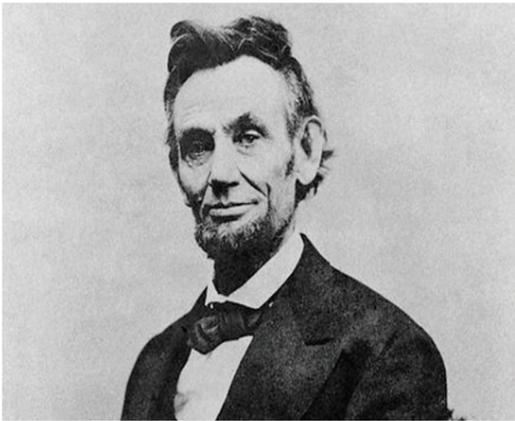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주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어린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으로 양육 받아야 합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려면 육신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고 육체로 하여금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육체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하는 대신 영혼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룩한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잘되어 그로 인해 육체도 함께 잘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링컨과 돼지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재임할 때의 일이다. 하루는 그가 밖에서 업무를 마치고 마차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하다가 진흙탕 속에 빠져 버둥거리고 있는 돼지를 보았다. 그는 “돼지가 구덩이에 빠졌군.”하고 혼자 말을 하며 무심히 지나쳤다. 숙소에 가까워질 무렵, 갑자기 마

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가 그를 흔들었다. “돼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인데, 살려고 하는 돼지를 구해줄 생각조차 안하는 내가 대통령으

로 수백만 명의 국민을 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내가 어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는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까지 생각이 미친 링컨은 대통령의 예복을 입은 채로 진흙탕에 있는 돼지를 구하러 달려갔다. 링컨은 진흙구덩이 속까지 내려갔다. 무성한 수염과 얼굴에 흙탕물이 튀고 옷도 더럽혀졌으나 그는 개의치 않고 돼지를 구해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일 자체만으로도 링컨의 자비로움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링컨의 정신과 태도를 그날 밤 그의 기도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링컨은 그날 일을 놓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서 통회했다.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오늘 제가 돼지를 구한 것은 돼지를 위한다기보다는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괴로움을 제거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어찌 감히 돼지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구해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의 양심의 고통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 아주 이기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세요요.”(仁)

CARTOON



전화를 걸면 희망이 보입니다

- t 평일 오전 10시~오후 7시  
주일 오후 2시 30분까지 토, 공휴일 제외
- p 02-831-1720~2, 070-7300-6767~9
- h www.sungrak-a.or.kr

SBC 성락인터넷방송

- t 월~금 12:00~13:00 | 주일 11:00~14:00
- h http://radio.sungrak.or.kr

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6:50(신길본당) 2부 · 오전 9:00(신길본당) (위성중계) 3부 · 오전 11:00(세계센터) (위성중계) 연합 · 오후 3:00(세계센터)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00(신길본당, 세계센터)
수 요 예 배	오후 7:30(기독교청년교회관)
금 요 철 야 기 도 회	오후 9:00(신길본당)
베뢰아신유성회(화)	오후 2:00(복음관 7층)
(목)	오전 10:30(복음관 7층)



TEL: 070-7300-6200, 63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 정류 장: 구로역 태영프라자(태영상가)  
간선버스: 160 260 503 600 660  
좌석버스: 301 320 510 905  
지선버스: 5614 6513 6637 6640  
일반버스: 11-1 11-2 88 92

- 지 하 철: 신도림역 1번 출구, 구로역 2번 출구,  
도림천역 1번 출구에서 5~10분 거리

구독안내 070-7300-6708  
입금계좌번호 예금주: 성락침례교회 | 우송후원금(1년) 7,000원  
국민은행 765-01-0033-508 | 우리은행 294-000511-01-078  
개척교회에 "예수내구주"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혼의 행복

# 감사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만듭니다.  
행복한 영혼이 하나님께 감사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내 영혼의 고백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옮겨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 50:23)

추수감사주일에배 11월 8일(주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070-7300-6200, 6300 www.sungrak.or.kr